

1. 교육학 (초수 17, 재수 20)

1) 수강 강의

저는 초수 때 강의를 패키지로 수강하였으며, 대학원과 병행하였기 때문에 1~6월까지는 인강을 듣고, 7~11월은 일요일 직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재수 때는 이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9~11월 문제풀이 강의만 일요일 직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직강으로 수강한 이유는, 강사 선생님께서 주시는 모범답안 이외에도 허용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직접 여쭙보고자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교육학은 전공과 다르게 오픈형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허용되지 않는 답이 있을 수 있으며,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허용되는 답이 있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사 선생님께 인정될 수 있는지 여쭙보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직강을 추천드립니다.

2) 월별 공부 방법 : 무한 회독과 전화스터디

초수 때는 선생님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서 월별 공부방법이 있었지만, 재수 때는 강의를 9~11월만 수강하였기 때문에 월별 공부 방법이라는 것이 없어 전반적으로 진행했던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3~8월 : 3주 1회독을 목표로 계속 전화스터디 하며 회독한 것을 점검 했습니다. (강의X)

1주	화	교육과정
	수	교육심리1
	목	교육심리2
	금	교육방법 및 공학1
2주	화	교육방법 및 공학2
	수	교육평가
	목	교육행정1
	금	교육행정2
3주	화	생활지도 및 상담
	수	교육사회
	목	교육철학
	금	(3주 과정에서 캔슬 있을 수 있어 예비용)

(2) 9~11월 : 3주 1회독을 목표로 계속 전화스터디 하였으며, 강의 내용을 복습하였습니다.

* 문제풀이 회독방법 : 1회독 때는 3회 분량을, 2회독 때는 5회 분량을 서로 문답하며 회독했습니다.

1주	화	교육과정 + 1주차 문제풀이 내용 복습(1,2,3회)
	수	교육심리1
	목	교육심리2
	금	교육방법 및 공학1
2주	화	교육방법 및 공학2 + 2주차 문제풀이 내용 복습(4,5,6회)
	수	교육평가
	목	교육행정1
	금	교육행정2
3주	화	생활지도 및 상담 + 3주차 문제풀이 내용 복습(7,8,9회)
	수	교육사회
	목	교육철학
		:

※ 다만, 11월부터는 가장 기출이 많이 되는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4) 암기방법 : 청킹

암기는 주로 선생님께서 청킹 해주시는 거 그대로 외웠습니다. 장점, 단점, 특징 2-3개씩 외우라고 하신 것을 그냥 청킹으로 개수 정하지 않고 모조리 짝 외웠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장에서 당황하면 2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당황하여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내가 외우지 못한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5) 스터디 진행 방법

1. 기간 : 3월부터 화-금 1시간 정도 (시험 전날까지 진행) 22:40~23:30
2. 방법 : 전화스터디로 진행
A: 타일러 목표중심 교육과정
B: 단계는~~ 특징은~~ 장점~~ 단점~~

6) 공부시간

교육학 스터디가 밤 10시 40분에 있었기 때문에 밤 9시부터 교육학 공부를 시작했으며, 빨리 끝나면 미술과 2015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외웠습니다.

7) 서브노트

선생님의 요점 자료를 서브노트 대신 활용하였습니다. 너무 잘 정리되어 있었기에 따로 서브노트를 제작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서브노트를 제작하는 그 시간에 다른 것 하나 더 외우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8) 오픈형 대비

오픈형 문항은 채점자를 설득하여 내가 적은 답안이 애매하더라도 틀렸다고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모범답안을 그대로 암기하여 만능 틀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만능 틀로 해결할 수 없는 답안인 경우, 주어진 개념의 범주를 1차적으로 확인한 후,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와 제시문을 모두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가채점했을 때 18점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20점이 나온 이유는, 아마 주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살짝 부족하더라도 뒤에 부연 설명이 풍부하여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어필되어 20점을 준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 문장을 쓴 후 부연 설명으로 "왜냐하면~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와 같은 문장을 덧붙이며 내가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2. 전공 (초수 50, 재수 56)

1) 실패 원인 분석

저는 초수 때 답안지 제출 전 6개의 답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결과 1개는 수정한 것이 맞았으며, 5개는 이전 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변경한 원인은 첫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회독할 당시 빠르게 회독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비교 포인트와 맥락,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 수강 강의

저는 초수 때 위상팀 강의를 패키지를 직강으로 수강하였으며, 교과서 분석은 2022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직전 11월에 수강하여 한 번 더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2022임용시험 준비를 시작하기 전 대학원을 다니며 기본, 심화, 교과서 분석을 먼저 가볍게 수강하였습니다.)

위상팀 강의를 계속 직강으로 수강한 이유는 첫째, 평일에 회독할 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여쭙보고자 직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장지연 선생님, 위상 선생님께서 퇴근도 안 하시고 모든 수강생의 질문을 받아주고 가십니다.)

둘째, 제출한 첨삭지를 다음 주 수업 때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 수강했습니다. (늦어도 2주 이내에는 대부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대면 첨삭 시 장지연 선생님께서 내 답안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콕콕 찌어서 알려주셨기에 계속 직강으로 수강했습니다. (내 답안에서 부족한 키워드와 오개념, 취지 파악이 잘못된 부분을 짚어서 알려주셨습니다.)

3) 강사 선택 이유

위상팀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판서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해 주시고, 교재를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이해가 쉬워 선택하였습니다.

둘째, 버릴 부분은 버리고, 비교 포인트와 중요한 부분을 짚어서 다뤄주시기에 선택하였습니다.

셋째, 강의가 끝난 후 질문을 했을 때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될 때까지 설명해 주셔서 선택하였습니다.

넷째, 팀티칭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즈에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으며, 다른 강의보다 내용이 풍부하여 선택했습니다.

다섯째, 모르면 답을 아예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답을 쓸 수 있게 문제를 출제되기 때문에 응용력이 높아져 선택했습니다.

3) 월별 공부방법 : 무한 회독과 전화스터디

〈초수〉

초수 때는 아무래도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다 보니 위상팀의 커리대로 꼭 따라가며 장지연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공부법을 그대로 따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확하게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없거나 공부 방법에 확신이 없다면, 장지연 선생님이 짜주는 공부 방법을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것도 효과적으로 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1~2월 : 기본강의 내용을 숙지하자.

1. 중점 사항 : 기본 개념 숙지를 위해 장지연 선생님과 위상 선생님께서 중점적으로 공부하라고 짚어주시는 부분과 비교 포인트를 완전히 숙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복습 방법 : 주차 강의에 맞추어 판서해 주시는 부분을 암기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고,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포스트잇에 비교 포인트 적어가며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하고 암기하였습니다.

(2) 3~4월 : 기본을 토대로 심화내용을 숙지하자.

1. 중점 사항 : 기본 이론을 통해 숙지했던 내용을 토대로 내가 습득한 지식이 문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복습 방법 : 기본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복습하며 심화 교재를 통해 내용을 확장했습니다. 확장한 후, 심화 교재에 잘 정리된 표를 활용해 목적, 내용, 방법, 평가, 특징, 장점, 단점, 작가(학자) 등을 구조화하며 암기했습니다.

(3) 5~6월 : 어떤걸 묻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자.

1. 중점 사항 : 아무리 다양한 개념을 알고 있어도 문제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동문서답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취지 파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복습 방법 : 기출된 서술 및 논술형 문제의 내용을 모두 암기하고, 기출된 키워드를 기본서에 회색 형광펜을 이용하여 체크해두었습니다. 체크가 끝나면, 그 부분들을 다시 암기하고 인출했습니다.

※ 교과서 분석은 초수 들어가기 전 해 12월에 수강했기 때문에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4) 7~8월 : 영역 별로 문제 스타일을 익히고 관련 개념을 정확히 암기하자.

1. 중점 사항 : 문제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되는 내용을 익히되 너무 깊게 들어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복습 방법 : 5~6월 복습 방법과 동일하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숙지하고, 기출된 키워드를 기본서에 회색펜 이용하여 체크했습니다. 영역별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에 주력하여 복습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5) 9~10월 : 내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자.

1. 중점 사항 : 통합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파트를 파악하고 개념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복습 방법 : 5~6월 복습 방법과 동일하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숙지하고, 기출된 키워드를 기본서에 회색 형광펜 이용하여 체크하고,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했습니다.

+ 기본이론 한 번 더 빠르게 수강(복습 이벤트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결제하여 수강했습니다).

(6) 11월 : 나올 것 같은 부분 위주로 한 번 더 인출하자.

1. 중점 사항 : X파일에서 장지연 선생님과 위상 선생님이 찍어주시는 부분은 온전히 암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복습 방법 : 찍어주신 부분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교육과정을 다 암기 못 했기 때문에 중학교의 성취기준과 역량, 교수학습방향은 모두 암기하고자 했습니다. 5~10월 동안 체크 해둔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해서 회독했으며, 마중물 문제를 풀며 개념을 숙지했는지 체크했습니다.

<재수> : 최종 합격 발표를 기다리다 불합격하여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 3~4월 : 기본을 다시 정확하게 다지고, 구조화하여 암기하자.

1. 중점 사항 : 저는 위상 이론을 대학원 다니면서 가볍게 기본 심화 1번씩, 초수 때 기본이론 3번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수강하는 것은 집중을 못 할 것 같아 다른 강사의 기본이론을 수강하였습니다. 수강하면서 추가되는 개념을 위상 기본서에 복사해 추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복습 방법 : 타 강사 이론 강의를 들었지만 위상 기본서를 보며 추가한 내용과 초수 때 체크 해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했습니다.

(2) 5~6월 :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자.

1. 중점 사항 : 초수 때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패인이라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복습 방법 :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하여 문제의 취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5) 취지 파악하는 방법 참고) 그 후 키워드와 개념을 암기하고 기본서에 회색 형광펜으로 체크해두었습니다.

(3) 7~8월 :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자.

1. 중점 사항 :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히 키워드를 가득 넣어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알고 있는 개념을 구조화하고 비교 포인트를 정확히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복습 방법 : 내 답지와 모범답안을 비교해 보며 빠진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부족한 키워드를 채워 다시 암기하고, 비교 포인트를 체크하고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 기본서에 추가했습니다.(포스트잇 활용, 4) 개념 이해하는 방법 참고)

(4) 9~10월 : 무한 인출을 반복하고, 키워드를 정확하게 암기하자. (체크리스트 활용)

1. 중점 사항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내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며, 구멍 난 부분을 채우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복습 방법 :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전화 스터디 활용해 무한 인출하고 꼼꼼하게 기본서를 씹어 먹는다는 생각으로 2주 반에 1회독을 진행했습니다.

(5) 11월 : 위상팀에서 찍어준 이론은 자다가도 나오도록 암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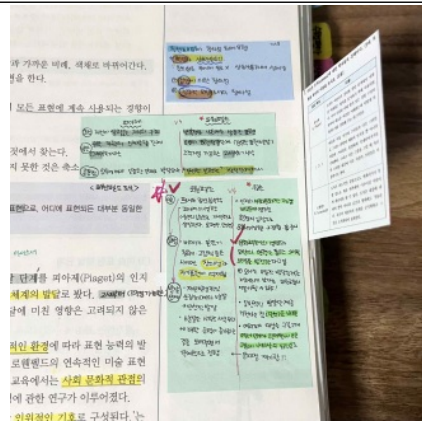
1. 중점 사항 : 포스트잇 활용해서 비교해둔 부분과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기본서를 모조리 암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복습 방법 : 기출 되지 않은 부분에 중점을 두어 꼼꼼하게 전체 2주 1회독 진행하고, 나올 것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고 2회독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4) 개념 이해하는 방법

개념 하나를 보더라도 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었는지 주변 맥락을 함께 파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개념에 대해 숙지한 후에는 이후 발생하는 개념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 개념과 자주 비교되어 출제되는 파트나 개념을 작은 포스트잇에 표로 만들어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문제풀이 시즌에 들어갈 때는 강사가 내는 문제를 1/4로 축소 복사하여 개념 바로 옆에 붙이고, 회독하는 과정에서 개념과 문제를 함께 보며 개념과 취지 파악 복습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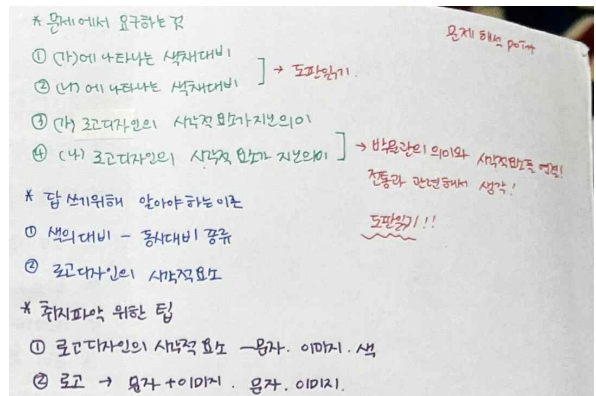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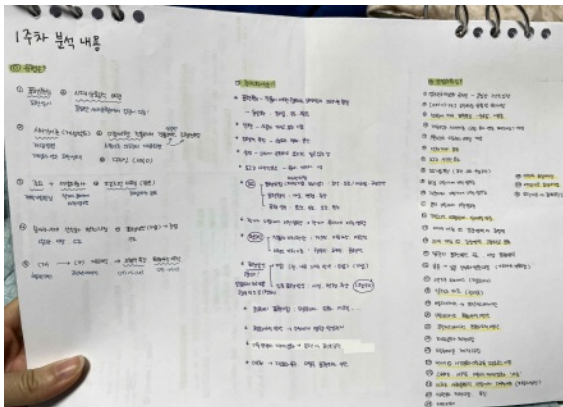


5) 문제 취지 파악 방법

5-6월 때 서술 논술형 문제풀이 강의가 있었습니다. A4용지에 강사 문제를 1/4로 붙이고 내가 쓴 답안과 강사가 주는 모범답안을 붙인 후, 공통되는 키워드를 체크하며 내 답안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틀린 이유를 알기 위해 엄격하고 냉정하게 키워드를 채점하는 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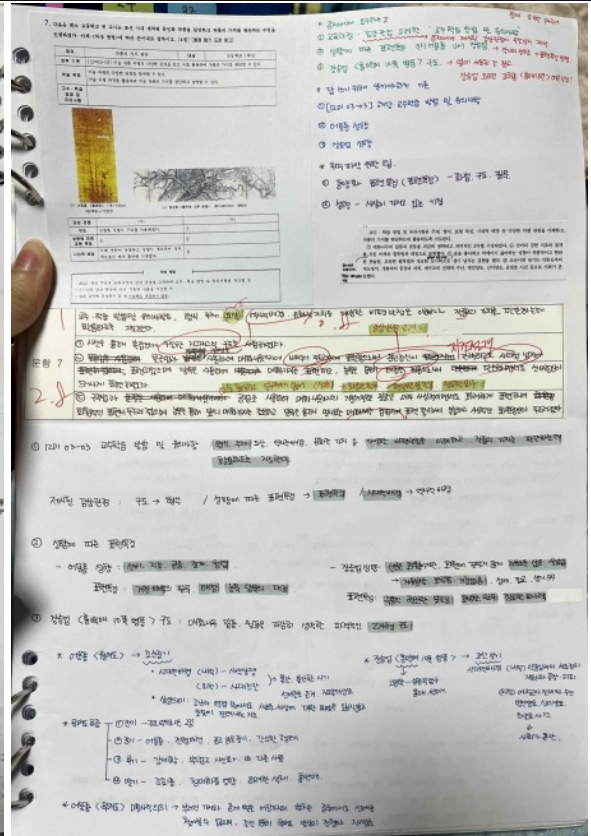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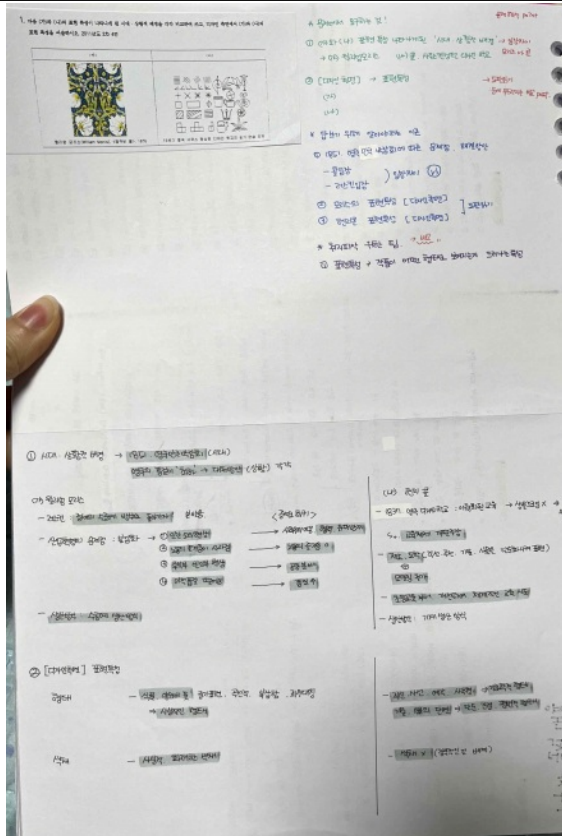
이후 3색 볼펜을 이용하여, 초록색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취지, 보라색은 취지 파악을 위해 알아야 하는 tip을 적었으며 (ex: 표현 방법: 사실적, 변형적, 추상적), 파란색으로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을 적었습니다. (ex: 마르코타주, 조선 후기 풍속화 등장 배경 -> 이런 식으로 간단한 개념만 적어뒀습니다)

또한 회색 형광펜을 이용해서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만 체크해두었습니다. 주차별로 강사가 제공하는 문제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정리하며 취지 파악하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문제 취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취지 파악이 어렵다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스터디

초수 때는 스터디를 안 했었지만, 재수 때는 대학원 동기 두 분과 전화 스터디를 진행했고, 다른 지역 선생님들과 함께 구르미 캠을 활용하여 생활스터디 진행했습니다. 초수 때는 시간 조절하고 다른 선생님들과 감정 상하는 게 싫어서 안 했는데, 마음 맞는 동기 쌤들과 하니 서로 모르는 건 알려주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시간 약속 철저하게 지키고, 같이 붙는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7) 공부시간

저는 시간을 딱딱 정해두면 더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라 시작하는 시간(8시)만 정해두고 유동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그 주에 끝내야 할 큰 틀만 잡아두고 세부 사항은 전날 저녁에 계획하였습니다.

공부는 작년 2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좀 쉬다가 시작했습니다. 3~4월에는 평균적으로 7~8시간 공부했고, 5~8월은 평균적으로 9시간, 9~10월은 10시간, 11월은 12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사진에 첨부한 것처럼 꾸준히 하긴 했지만, 상반기 때는 마음을 좀 못 잡았던 것 같긴 합니다. 공부 시간이 꼭 성적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함과 어느 정도의 양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ID : shin._zi_art 에 세부적인 시간은 나와있으니 궁금하시면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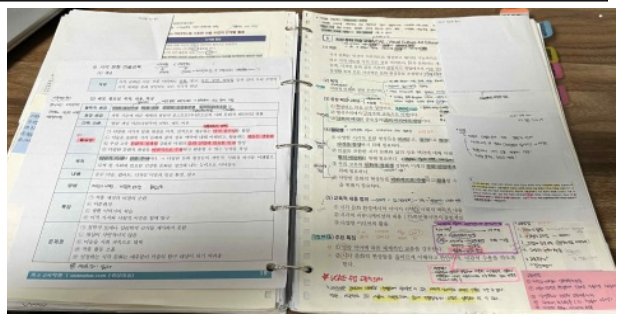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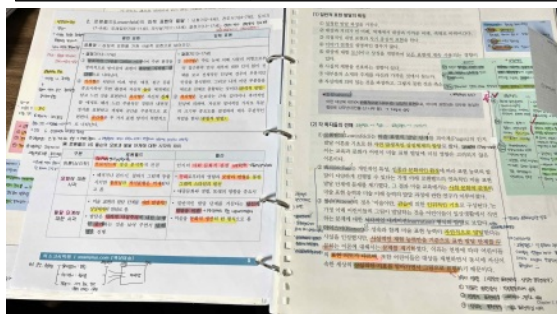
8) 서브노트

서브노트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기본서에 추가적인 자료를 복사해서 끼우거나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단권화만 했습니다. 게으른 성격이라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으며, 같은 내용을 왜 또 타이핑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단권화는 초수 때 받았던 X파일 자료를 복사하여 관련 개념 옆에 끼워 넣으며 구조화했으며, 문제풀이 때 받은 자료들을 1/4로 축소하여 관련 개념 옆에 붙여줬습니다.

9) 필독서

기본서 씹어 먹기 벅차 필독서 안 봤습니다. 필독서는 강사가 보고 중요한 내용을 수강생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따로 필독서를 구매해 보진 않았으며, 간혹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다가 해당 작가가 궁금하여 서양미술 용어 사전을 뒤져본 적은 있네요.

교과서 (만들어진 자료 활용)	1. 기간 : 3월 중순부터 진행. 평일 매일 3페이지씩 2. 회독 수 : 2회독 끝나고 종료 (표현, 동한미, 서미 훑는 용으로 활용) 3. 방식 : 전화스터디로 진행,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던 부분과 기입으로 나 올 수 있는 부분 서로 물어보는 방식 *아침에 잠 깨는 용도로 활용
표현파트 (체크리스트 활용)	1. 기간 : 월, 수, 금 3일부터 시험 전 주까지 2. 회독 수 :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4회독 정도?(얼마나 돌렸는지는 모르 겠고 시험 3일 전까지) 3. 방식 : 전화스터디로 진행, 체크리스트 보며 돌아가면서 대답하고 부족 한 키워드 보충해 주는 방식
용어사전 (단어리스트 활용)	1. 기간: 5월-시험 전 주, 월-토 2. 회독 수 : 2회독 3. 방식 : 밴드 활용, 3명에서 15단어 중 4개 뽑아서 빈칸 뚫어 올리고 맷글 다는 방식 (A: 월화, B: 수목 ... 문제 제작) ※ 스터디를 하긴 했으나, 내가 올려야 하는 단어만 보고 점점 잘 안 보게 된 것 같아 엄청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교론 (체크리스트 활용)	1. 기간 : 8월부터 화, 목 1시간 정도 2. 회독 수 : 4회독은 한 듯..? 시험 전 주까지 진행 3. 방식 : 전화스터디로 진행, 체크리스트 보며 돌아가면서 대답하고 부족 한 키워드 보충해 주는 방식
생활스터디	1. 기간 : 3월~시험 전 날까지 2. 시간 : 8:00am 접속~ 3. 방식 : 평일 진행, 1회 휴식권 있고 하루 10시간씩 채워야 퇴장 가능. 늦으면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500원씩 입금. 4명 진행.



* 용어 사전 : 타강사 용어 사전 강의 1번 들긴 했지만, 용어 사전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그렇
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대신 위상 모서리 쪽에 있는 자투리 단어(?) 같은 거는 모두 숙지한 상
태로 시험장 들어갔으며, 모르는 자투리 단어는 위상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용어 사전을 열심히 안 봐서 올해 클로이스터? 문제를 틀린 것 같지만, 이 문제는 다 같이 틀
리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용어 사전을 보는 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3. 2차 시험 준비

1) 마음가짐

초수 때 2차까지 교육청에 위탁한 사립학교의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경기도의 2차 시험 분위
기는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초수 때 낮았던 실기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 과목을 변경하여 평달에
3~6월 동안 3개월 주 2타임 실기학원을 다녔습니다.

1차 발표 전에는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에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실기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기점수가 발목을 잡았기에 올해도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강사 선생님께 이것저것 궁금한 부분을 많이 여쭙봤습니다. 수업실연과 수업 나눔도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꾸려 시작했습니다.

1차 발표가 난 후에는 그래도 1차 점수가 좀 여유가 있어 불안했던 마음을 다스리고 조금 여유 있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은 가지되 실기, 실연, 나눔을 발표나기 전과 같이 열심히 스터디 참여하고 스터디원들 피드백 해줬습니다. 경기도는 수업 나눔이 있어 경기도끼리 스터디원을 구성합니다. 스터디원을 떨어뜨리고 자신이 붙는다는 마음보다는, 함께 다 같이 붙는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더욱 발전하는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기 : 동양화

저는 초수 때 서양화로 시험을 쳤습니다. 예고 입시할 때 잠깐 했던 수채화로 전공자들을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 느껴 재수 때 동양화로 변경했습니다. 동양화로 변경했지만, 이 역시도 평달에 다니지 않았다면 단기간에 실력을 올리기는 정말 힘들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달에 주 2타임씩 수강하며 개체를 그리고, 그림을 카피하며 재료를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 경험의 결과 동양화를 완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평달에 조금 다니며 재료를 다루는 방법과 색 쓰는 방법을 조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양화보다 동양화가 전공자가 더 적고 단기간에 빨리 늘 수 있다고 하여 선택했지만, 동양화가 서양화보다 화지도 크고 출제되는 범위도 넓다 보니 재료조차 다루지 못한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실기 : 조소

저는 디자인 전공이지만, 예고 시절 고2~고3 5월까지 조소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따로 평달에 실기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초수 때 조소에서 조건을 놓쳐 실기를 망쳤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조건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실기에 임했습니다. 제 경험의 결과 초수와 재수 때 모두 흠에 알갱이들이 콕콕 박혀있어서 손이 엄청나게 빠르지 않은 이상 완성도는 비슷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건과 형태를 지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수업실연

수업실연은 초수 때 한 번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만들어져 있는 틀을 그대로 재수 때도 활용하였습니다. 자신만의 동기 유발 방법이나 칭찬,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만들어 두면 주제에 따라 바뀌어가며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1차 발표 전 주 2회, 1차 발표 후 주 3회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인원은 총 6명으로 했으며, 1차 발표 전에는 한 주에 강사 선생님께서 만들어둔 문제 1번, 스터디원끼리 만든 문제 1번으로 진행했습니다. 함께 구상하고 실연 후 피드백까지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스터디원들이 봐준 제 사소한 버릇들과 생생한 동기유발 부분을 스터디 때 녹여서 실연하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 실연할 때는 엄청 떨었지만, 매서운 눈을 가진 스터디원들 앞에서 수없이 실연을 하니 막상 실연하는 시험장에서는 별로 떨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실연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수 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잘렸는데, 그보다 재수 때 점수가 덜 나온 것을 보면 제가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에 급급했던 나머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보여주지 못해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수업실연 때 “스캐퍼 기법이 적용된 것을 우리 반 교실에서 한 번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채점관들이 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며 무엇을 적었던 것 보면 교실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나,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활동이 있으면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실연의 복기는 <https://blog.naver.com/sjh100267> 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수업나눔

수업 나눔은 수업실연 스터디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실연이 끝난 후 사이다 수업 책에 실려 있는 모의고사 부분을 활용하여 진행했습니다. 나눔을 위해 실연에 몇 가지 장치들을 넣어두긴 했지만, 실연이 너무 어색해지지 않는 선에서 넣고자 했습니다. 만약 내가 넣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실연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연습했습니다. 수업 나눔 점수가 초수 때는 9.4였는데 올해는 8.94로 떨어진 이유가, 초수 때는 한 문항에 다양한 측면에서 적어도 2~3가지의 방안을 제시했었던 것에 비해 재수 때는 2번 문항에서 중복되게 대답한 부분

도 있었고, 답변의 가짓수도 풍부하게 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수업 나눔의 문항에 대한 만능 틀을 한 번 작성해 보시면 나눔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나눔의 복기는 <https://blog.naver.com/sjh100267> 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면접

면접은 기왕이면 1차 시험이 끝난 동시에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을 섞어서 스터디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1차 시험이 끝나고 '한마음 교사되기'라는 카페에 스터디 원을 구한다는 글을 쓰고 도덕윤리, 일반사회, 정보 컴퓨터로 스터디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제가 글을 올려 스터디를 직접 구한 이유는, 저희 미술 교과가 실기가 있는 교과다 보니 시간이 유동적이지 못해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두 1차에 합격했고, 그 인원 그대로 2차 시험까지 준비하여 현재 모두 최종 합격했습니다.

저희 스터디원들이 모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도 시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과별로 제시할 수 있는 수업 방안, 생활지도 방안, 교과 융합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던 것이 가장 큰 비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며 테마 별로 만능 학급 운영방안, 활동을 3가지씩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구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면접 스터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터디원들끼리 컨셉을 잡아 연출한 덕분에 시험장에서 채점관들의 '굳 리스너', '엄격한 호랑이', '무관심'의 컨셉에 당황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끔 스터디원들끼리 컨셉을 잡아 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면접 내용 복기는 <https://blog.naver.com/sjh100267> 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저는 평소에 엄청 부지런하지도, 계획적이지도, 꼼꼼하지도 않은 게으른 성격입니다. 이러한 성격들도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짧게나마 합격수기를 적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세운 계획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다그치지 마세요. 저는 항상 다 못 끝냈고, 항상 부족했습니다. 다그치지 말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면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끝내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11월의 시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도 몇 번의 슬럼프가 왔고, 초수 때 탈락한 이후로는 5월까지 집중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슬럼프도 나를 다독여주고 들쭉이는 엉덩이를 꼭 붙이고 있으면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부족한 건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 본인을 믿으시고 다독여주며 이 레이스를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